

# 빛으로 세상을 품은 성경 이야기

렘브란트의 하나님

안용준

『렘브란트의 하나님』은 세상을 안을 만큼 가슴이 넓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빛과 생명을 공급하기에 소홀함이 없다. 작은 것에도 큰 것에도 정의와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중한다. 한마디로 이 책은 성경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포용하며, 그 안에서 창안된 예술의 가능성과 풍부함을 드러내준다. 뿐만 아니라 작품의 구조분석을 통해 그 세계를 한층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신학적 조형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

렘브란트 활동 당시 유럽의 화가들에게 성경 그림은 한물간 시대의 흔적이었다. 찾는 이가 별로 없기에 이 분야의 종사자들이 줄어드는 것도 당연시 되던 때였다. 얼핏 보면 렘브란트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사람으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렘브란트는 생전에 유화 160점, 동판화 80점, 드로잉 160점 등 850여 점이나 되는 성경 그림을 제작하였다. 그는 당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히려 세대를 변화시킬 만한 사명과 능력을 유감 없이 발휘한 것이다.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술과 미학을 전개한다.

저자인 안재경 목사는 렘브란트의 예술과 미학에 나타난 뚜렷한 하나님의 섭리에 동의한다. 그는 〈스테반의 순교〉에서 〈탕자의 귀환〉에 이르는 12점의 유화와 동판화를 선보이며 신구약 전권을 묘사한 렘브란트 예술의 요체가 무엇인지 제시한다. 여기서 그는 렘브란트 예술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곧 하나님의 창조성을 드러내고 고양시킨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은 생명력 넘치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창조하시고 빛으로 미적(美的) 공간을 꾸미셨다. 이것은 공허한 세상을 충만한 생명으로 채우는 창조적 행위였다. 『렘브란트의 하나님』 역시 생명의 공간 안으로 초대된 빛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마음 깊이 자리 잡게 하며 인간의 영혼을 드러내는 근원임을 선명히 한다.

가만히 살펴보자. 저자는 〈스테반의 순교〉에서 빛이 화면의 위로부터 사선으로 가르며 스테반의 얼굴에 투영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손을 치켜들고 하늘

을 우러러 보는 스테반의 빛나는 얼굴은 예수님을 연상시킨다. 예수님이 고초 당하시며 십자가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말이다. 〈논쟁하는 두 노인〉에서의 빛은 이미 자연의 한계를 넘어 은혜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듯 하나님의 빛의 은총과 자비로움은 이 책에 면면히 흐르는 핵과 같다. 결국 〈탕자의 귀환〉에서 절정에 이른다. 한때 세속적인 위안과 쾌락에 빠졌던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 그의 얼굴에는 긍휼과 사랑이 묻어나고 초월적인 빛으로 물든 모습이다.

우리가 렘브란트의 예술적 공간으로 초대되어 누리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미학적 활동이 된다. 이때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게 된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책에서 빛의 은총은 단지 미학적 활동을 위한 그림 해석의 중요 도구로만 머물지 않는다.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선포하며 가톨릭의 전통 권위에 저항하는 교회의 갱신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고 있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의 사상에 의한 교회의 갱신운동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렘브란트도 종교개혁에 동력을 제공한 기독교인문주의에 동의하고 있다. 기독교인문주의 학풍의 학문적 감각이 그를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환경으로 몰아넣는 통로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백 길더 판화〉에는 루터와도 교류한 바 있던 대표적인 인문주의 학자 에라스무스



(Desiderius Erasmus, 1467?–1536)가 등장한다. “원래 자료들로”(ad fontes)로 돌아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인문주의의 강조는 성경 연구에 있어 주석서들보다 성경 자체가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시켰다. 이것은 원어로 인쇄된 성경 본문을 이용 가능하게 만들었다. 1516년 에라스무스 신약성경 등이 그 예이다. 렘브란트는 에라스무스와 로이힐린 등 성경적 인문주의자(biblical humanists)들이야말로 성경과 관계된 교부들의 문서를 원어로 공부했으므로 성경 주해 방법의 한계와 통제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했다. 렘브란트의 성경에 대한 인식은 시각예술 분야에서 놀랄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즉 성경의 계시에 대한 균형 있는 예술

적 시각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의 한계를 엄청나게 늘려 놓았다.

이 책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건강한 삶과 교회의 모습을 제안하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는 데 있다. 렘브란트가 그토록 애정을 보인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고백과 전통이 현대 교회 문제의 어려운 실마리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렘브란트의 생애 마지막 자화상 가운데 하나인 〈바울로 분한 자화상〉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렘브란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절실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이런 점에서 당시 화단의 대표주자인 루벤스와의 비교는 우리 인생의 친절함 나침반이 된다. 루벤스를 포함한 많은 르네상스 예술가들은 그리스 미술의 전통을 이어받아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신화에 근거한 모호한 이야기를 꾸러나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렘브란트는 이상화된 영웅적 묘사로는 성경의 역사를 그리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마찬가지로 저자는 무릇 그리스도인이자라면 영웅적인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을 제안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예술이 어떻게 세상에서 소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다. 올바른 이미지에 대한 이해는 감상의 차원을 넘어 성경의 신비까지도 제대로 목상할 수 있는 길로 이어진다. 렘브란트는 구구절절 복음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림으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묘사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했다.

이를 설명할 만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루터의 첫 번째 독일어 번역판이 1522년 9월에 '9월 성경'(September Testament)이라 불리며 세상에 나왔다. 여기에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설명하는 21개 목

판화가 포함되었는데, 12번의 인쇄를 거듭할 정도로 성공적이었으며 대중을 향한 종교개혁의 확산에 기여했음은 물론이다. 계속해서 1523년, 루터의 구약성경이 빛을 보게 된다. 루터의 히브리어 번역에는 젊은 비텐베르크의 개혁자, 멜랑히톤(Philipp Melancthon, 1497~1560)을 포함한 몇몇 히브리어 학자의 도움이 필요했다. 여기에도 독일의 루카스 크라나흐(Lucas Cranach)의 판화가 실렸는데 이 중 몇 작품은 루터 자신에 의해 표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예로 솔로몬 성전을 묘사하면서 그 세부까지도 놓치지 않고 구성해 내었는데, 이것은 그가 유대인의 이미지 사용 방법과 성경계시의 이미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저자는 르네상스 전성기에 어떻게 종교개혁의 이념이 형상화되는지 보여준다. 사실 동시대의 역사 안에서 '르네상스 전성기와 종교개혁'의 예술을 구별하여 인식하는 일은 중요하다. 줄곧 후세의 역사가들에게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만큼 분명한 종교적, 미학적 견해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르네상스 전성기의 예술은 고대 그리스 미술의 정통 후예로 자처하는 만큼이나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이상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이 예술은 훗날 빙켈만(Johann Joachim Winckelmann, 1717~1768), 부르크하르트(Jacob Burckhardt, 1818~1897)와 같은 미술사학자들 탄생시킬 만큼 매력을 지닌 것이었다.

저자는 이러한 이탈리아 미술의 전통과 종교개혁이라는 이중적 권위의 틀로부터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가 있다는 종교개혁의 사상에 이르는 렘브란트 예술의 여정을 매우 의미 있게 전달하고 있다. 눈여겨볼 것은 소개된 성화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성화 안에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독자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목적이요 내용이다. 이 그리스도 중심의 가르침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신앙을 고백하는 체험적 구원관으로의 성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책에 소개된 대로 당대의 지배적인 복음의 정신을 잘 알고 있었던 렘브란트는 성경의 계시에 적합한 예술의 주제들에 관하여 묘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종교개혁 예술의 전통을 수립할 수 있었다. 실로 예술이 성경의 계시 안에 포함된 다양한 주제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사람의 마음속에 환기시키고 기억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여겼다. 이러한 렘브란트의 생각은 중세 가톨릭주의의 신학적, 교의학적 뿌리를 뒤흔드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개혁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만든 미학적 발로가 되었다.

이 책에서 설득력 있게 강조하는 종교개혁의 미학적 움직임이 우리의 마음에 더욱 절실히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저자의 표현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는 교회야말로 스스로 위기에 노출되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역사상 교회는 항상 위기 가운데 있었다. 교회는 항상 복음으로 인한 위기를 경험해야 한다는 말이다. 복음이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지만 우리를 늘 위기에 노출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엄숙한 고백이 담겨 있는 렘브란트의 성화는 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교회의 영성 확립을 위한 미학적 제안이 될 수 있다. 위기에 놓인 인간의 삶에 바람직한 방향을 구체적

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성화가 탐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렘브란트의 언급대로 "우리가 복음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거듭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로 인해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려야 할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저자가 이 책에서 써내려 갔듯이, 〈절규하는 유다〉를 통해 인간 배반의 지형도를 보게 된다. 오늘날에도 돈 때문에 의리쯤은 쉽게 저버리는 사회,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교회일수록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또한 교리적인 기초 없이 성장한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한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위장된 선을 주장하는 허망한 대결, 팽팽한 암투, 기발하기 그지없는 지략 싸움은 중독성 강한 이야기의 그물망을 형성하고 교회를 에워싸고 있다. 비범함처럼 영여있는 이 위기를 무엇으로 극복해나갈 것인가. 해답은 복음이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수호해 왔던 복음은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있는 기독교회의 신앙과 신학의 초석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16세기 종교개혁 때 매이리쳤던 교회의 개혁과 신앙 갱신의 목소리가 이 책 곳곳에 담겨 있다. 과학화, 융복합화, 문명화를 추구하는 현 시대에 과연 교회의 개혁과 신앙 갱신의 출발점이 어디이며, 그 동력은 무엇인지. 저자는 우리의 궁극증을 해결하기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마다하지 않는다.



**안용준** 중앙대학교 독문과에서 학사,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미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원에서 예술학 박사논문 준비 중이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동 대학원 기독교철학과에서 '현대 개혁주의미학'을 연구하여 철학박사를 마치고,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에서 미학미술사 연구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목원대 미술디자인대학 기독교미술과 겸임교수이며 연희동 원전 교회 협동목사, 미술 선교단체인 '아트미션(Art Mission)'에서 목사로 섬기고 있다.